

영아기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Actor and Partner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with Infants*

김민정¹ 이방실² 정미라³

Kim, Min Jeong¹ Yee, Bang Sil² Chung, Mi Ra³

ABSTRACT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3282).

1 제1저자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
연구교수

2 제2저자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3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mail: mrchung@gachon.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measured at 6 months of infancy, and on parenting stress at 9-months of infancy through a short-term longitudinal approach. Participants were 116 coupl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whose first born children were in infancy. The results of the 116 couples were analyzed through the APIM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APIM showed that mothers'and fathers' actor effect was significant, which meant that parenting efficacy at 6 months of infancy could predict the existence of parenting stress at 9 months of infancy. However, the partner effect of both mothers and fathers was insignificant.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of parenting efficacy at early infancy, which in turn affects parenting stress as well as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pre-parental education.

Key word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Infant's Parents,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I. 서론

최근 한 신문기사에서 ‘남편들의 육아수다’라는 칼럼을 통해 아빠들의 대화 속에서 이유식부터 주말체험 학습까지 다채로운 육아고민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도했다(손원혁, 2016. 4. 6, A21). 이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분담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들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Amato, Meyers, & Emery, 2009; Lamb, 2010; Woodworth, Belsky, & Crnic, 1996). 자녀양육의 역할이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자녀양육을 부부 공동의 일로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 체계 접근에서는 가족을 복합적이고 통합된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Cox & Paley, 1997). 이런 경향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생태학적 접근에서도 가족 체계 내의 상호연결을 강조하면서(Belsky, 1984; Junttila, Aromaa, Rautava, Piha, & Riih , 2015) 부부라는 변인은 상호 영향력을 미치는 의존적 변인으로 보고 부모특성에 대한 탐색이 상호의존 모형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변인 간 양방향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연은모, 최효식, 2015; 이인정, 김미영, 2014; 최효식, 연은모, 2014; Ponnet, Mortelmans, Wouters, Van Leeuwen, Bastaits, & Pasteels, 2013). 그 외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립된 변인으로서가 아닌 매개 또는 중재변인으로 설정하는 연구(노성향, 2014; 최향준, 조수경, 김미정, 2015)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변인은 서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역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자녀발달을 돕는 부모역량 증진에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나 부모역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신숙재, 1997; Johnston & Mash, 1989; Junttila et al., 2015). Coleman과 Karraker(1997)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송미혜, 2006; 이경옥, 2008; 정혜인, 2003). Mondell과 Tyler(198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양육 문제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자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거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박미숙, 2012; 오미연, 2005; 한유미, 2003; Jackson, 1998; Johnston & Mash, 1989). 즉,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역량에 만족하고 다양한 양육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는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어 양육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주장(Gross, Fogg, & Tucker, 1995)과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교류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Scheel & Rieckmann, 1998)에 기초해 볼 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탐색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육효능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에게 발생하는 특정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Deater-Deckard, 199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고(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Belsky, Woodworth & Crnic, 1996) 자녀의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정윤주, 김윤주, 2014; Crnic, Gaze, & Hoffman, 2005; Kazdin & Whitley, 2003) 자녀발달과 관련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Ponnet 등(2013)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본인의 양

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부부 간 상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어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육변인 중 스트레스와 효능감은 심리적 변인으로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일차적으로는 자녀와 양육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만, 양육을 분담하는 체계를 고려할 때 이차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노성향, 2014; 양진희, 2009; Crnic & Greenberg, 1990; Lamb, 2010)은 이들 변인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즉, 노성향(2014)은 35~42개월 된 유아기 자녀를 둔 1,6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통해 아버지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양진희(2009)는 만 4세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할수행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 부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Crnic와 Greenberg(1990)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취약계층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양육지지에 따라 감소하였음을 밝혔고, Lamb(2010)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양육역할은 배우자인 어머니 양육의 질과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직, 간접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상대방 효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기나 아동기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히고 있다(Crnic & Booth, 1991; 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그 이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족체계변화와 양육지식의 부재, 부모역할 수행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것이다(Mulsow et al., 2002).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출생 직후 상대적으로 높으며(Crnic & Booth, 1991; Mulsow et al., 2002), 자녀가 걸음마기에서 유아기로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liford, Calkins, & Keane, 2007).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걸음마기 이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12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변인을 탐색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다.

한편, 출생 후 12개월까지는 발달특성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이 시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자녀관을 형성하게 된다(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2005; 정옥분, 2012; Murkoff, Eisenberg, & Hathaway, 2009; Zero-to-Three, 2008).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

육지원은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Kitzman-Ulrich et al., 2010) 12개월 미만 영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을 단기종단으로 살펴본 김미옥(2007)은 자녀가 2개월 때보다는 6개월 때 어머니-영아 간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영아의 놀이행동 시도가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어 6개월 시점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발달적으로 중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6개월 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정인영(2008)의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이 시기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시점은 영아의 분리불안이 증가하고 이동능력과 소근육이 발달하여 주변 사물탐색욕구가 강해지는 9개월 시점이 더 적절하다. 모아의 관계를 적응의 과정으로 설명한 Sander(1964)는 생후 6개월까지 사회적, 행동적으로 소극적이던 영아가 9개월부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매달리는 행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시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부모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한 6개월 시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9개월 시점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양육의 종단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구분하여 연구하거나 부부변인을 함께 다루더라도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만 다루고 있다(김낙홍, 백인경, 2015; 이윤정, 2014; 조준오, 탁정화, 2015; 최항준, 조수경, 2015). 대부분의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손수민, 2010; 이인학 등, 2010)도 부모변인 간의 의존적 상호 영향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독립된 영향관계 또는 매개나 조절효과만을 밝히고 있다(김근혜, 김혜순, 2013; 노성향, 2014; 최항준 등, 2015). 부모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의존적 관계로 살펴본 유일한 연구(최효식, 연은모, 2014) 역시 그 대상이 유아기 부모이며,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특성에 포함된 변인 하나로 연구되어져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살펴보고, 어린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변인은 서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역학적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단순 합산하는 등 아버지와 어머니 간 상호의존성과 상보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Ponnet et al., 2013).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횡단자료의 분석이므로 변인간의 상호 인과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연은모, 최효식, 윤해옥, 2015).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의 상호 영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쌍방향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고

자 한다. 본래 APIM모형은 부모 쌍을 분석의 단위로 쓰는 다면적 가족 체계 접근으로서(Fincham & Beach, 2010) 아버지와 어머니 간 상호 영향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APIM모형에서 자기효과(actor-effect)는 부부 자신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스스로에게 주는 영향을 의미하며, 상대방효과(partner-effect)는 부부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방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초기 영아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시기인(이희정, 2014) 6개월 시점의 양육효능감이 이후 9개월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개월 시점에 측정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9개월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양육효능감이 갖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족체계 내에서 이해하고, 추후 출산 후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6개월 시점의 부모 양육효능감이 9개월 시점의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6개월부터 9개월까지 단기종단연구에 참여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총 11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6개월 시점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9개월 시점에는 부모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자녀 출생순위는 116가정 모두 첫째아로, 성별은 남아가 64명(55.2%), 여아가 52명(44.8%)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평균 연령은 34세($M = 34.01$, $SD = 4.84$), 어머니 평균연령은 31세($M = 31.20$, $SD = 2.64$)였다. 부모 연령은 아버지(85.3%)와 어머니(73.3%)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여부는 아버지의 경우 105명(90.5%)이 취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어머니의 경우 휴직이 58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75명(64.7%), 어머니는 79명(68.1%)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32)

		M(SD) or n(%)	
		아버지(N = 116)	어머니(N = 116)
부모 평균 연령		34.01(4.84)	31.20(2.64)
부모 연령	20대	9 (7.8)	30 (25.9)
	30대	99 (85.3)	85 (73.3)
	40대 이상	7 (6.0)	1 (0.9)
	무응답	1 (0.9)	0 (0.0)
취업여부	취업	105 (90.5)	10 (8.6)
	휴직	2 (1.7)	58 (50.0)
	비취업	0 (0.0)	46 (39.7)
	무응답	9 (7.8)	2 (1.7)
최종학력	2-3년제 이하	18 (15.5)	16 (13.8)
	4년제	75 (64.7)	79 (68.1)
	대학원	21 (18.1)	18 (15.5)
	무응답	2 (1.7)	3 (2.6)

2.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안지연(1999)이 요인분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세 요인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역문항을 긍정문항으로 수정한 총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8문항, 부모역할 스트레스 10문항,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는 ‘나는 나의 아이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나는 아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다.’등을,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내 아이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아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같이 느껴진다.’등을 들 수 있다.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의 예는 ‘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면 매우 신경질 적이다.’, ‘내 아이는 아주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낸다.’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별도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척도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하나의 척도를 아버지에 맞춰 수정한 척도이므로 이러한 척도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설문을 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잘 측정하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 부하량의 기준이 .30이상(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이어

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양육효능감은 5, 11번 문항이, 9개월 양육스트레스는 2, 3, 18문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당 문항을 제외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가 지각한 스트레스는 .79,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86,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81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는 .74,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86,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80이었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PC)를 안지영(2000)이 우리나라 문화와 영유아 자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8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등이, 부모역할 어려움은 ‘부모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어려움의 경우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경우 부모역할 자신감은 .79, 부모역할 어려움은 .77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 자신감은 .69, 부모역할 어려움은 .73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부설 연구원 홈페이지, 육아관련 온라인 카페에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탑재하고, 소아과 및 보건소에 연구대상 모집공고문을 비치하여 e-mail과 전화 신청을 받아 모집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 1개월 이전 시점에 실시하여 각각 6개월과 9개월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시 질문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자녀가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3월, 자녀가 9개월이 되는 시점인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였다. 조사된 130쌍의 설문 중 임신기간 37주~42주 사이의 만삭 출생아이며 첫째아 출산이 아닌 경우(14쌍)를 제외한 부모 116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실시 전에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설문지 응답에는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각 시점마다 설문지는 각 가정으로 회수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고 일주일 간 작성기간을 두고 우편으로 회수하거나,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AMOS 23.0,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배경, 측정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APIM 모형 분석은 Cook과 Kenny(2005)의 방법에 따라 효과 추정 후 등가제약모형을 사용하여 효과 간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χ^2 차이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χ^2 차이검증은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의 χ^2 값과 본 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값이 클 경우 등가제약을 했던 경로의 경로계수 값이 유의하게 다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최대우도법(ML)을 활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보다(Hoyle & Panter, 1995),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관 및 다변량정규분포성 검증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변인의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4를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 및 다변량정규분포성 검증 (N = 232)

	1	2	3	4	5	6	7	8	9	10
1	1									
2	.41***	1								
3	.47***	.49***	1							
4	-.27**	-.25**	-.31**	1						
5	-.34***	-.22*	-.23*	.64***	1					
6	.23*	.24*	.12	-.28*	-.33***	1				
7	.11	.32***	.17	-.14	-.17	.35***	1			
8	.18	.26***	.35***	-.10	-.16	.46***	.45***	1		
9	-.13	-.14	-.15	.21*	.20*	-.32***	-.27**	-.24**	1	
10	-.02	-.10	.01	.28**	.28**	-.33***	-.14	-.24*	.52***	1

〈표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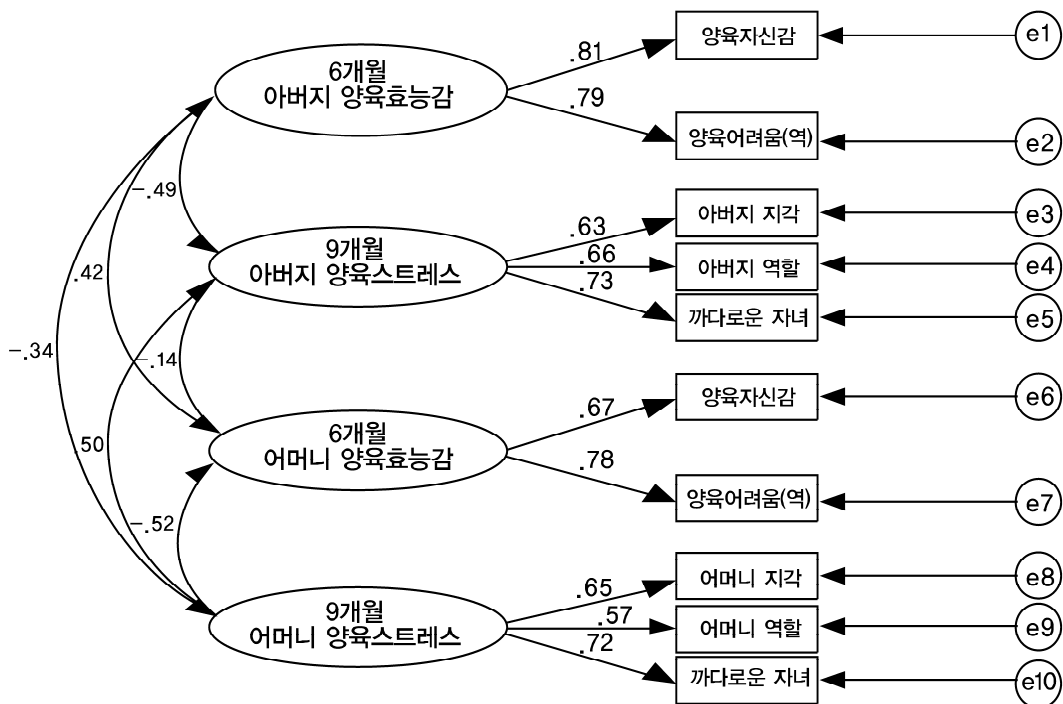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i>M(SD)</i>	1.91(.44)	1.41(.40)	1.89(.42)	2.71(.34)	2.80(.39)	2.07(.39)	1.42(.42)	2.05(.45)	2.74(.33)	2.65(.36)
<i>skew</i>	.22	.89	-.27	.02	.29	-.22	1.58	-.32	-.52	.31
<i>kurto</i>	-.01	.30	-.57	.22	.16	.13	3.55	.01	-.17	.68

* $p < .05$, ** $p < .01$, *** $p < .001$.

1. 아버지 지각 스트레스, 2. 아버지 역할 스트레스, 3.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4. 아버지 양육자신감, 5. 아버지 양육어려움(역), 6.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7. 어머니 역할 스트레스, 8.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9. 어머니 양육자신감, 10. 어머니 양육어려움(역)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적합도는 $RMSEA = .057$, $TLI = .922$, $CFI = .959$ 로 나타나 세 적합도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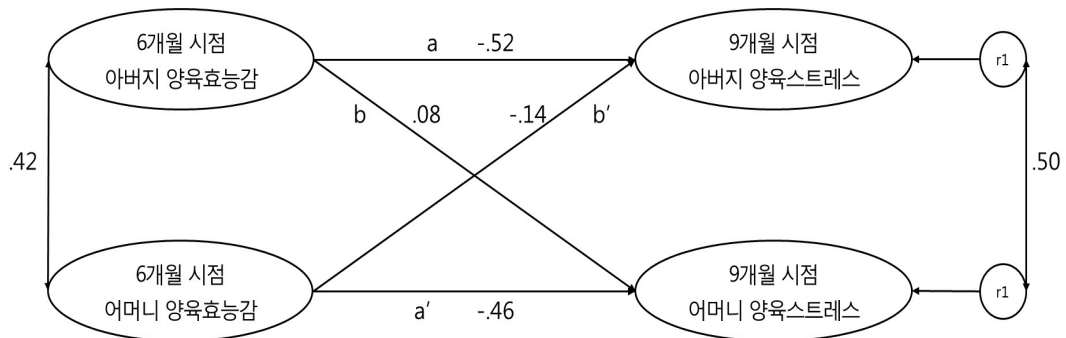
3. 자기-상대방(Actor-Partner) 효과 확인

1) 6개월 시점의 양육효능감이 9개월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상대방(actor-partner) 효과 확인(기본모형)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적합도는 RMSEA = .057, TLI = .922, CFI. 959로 나타나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과 같이 6개월 시점의 양육효능감은 9개월 시점에 측정된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효과는 유의하지만 상대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2] 참고).

<표 3> APIM 모형 경로계수

경로계수			B	S.E.	z	β
아버지 양육효능감	→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52	.16	-3.17	-.52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08	.14	.55	.08
어머니 양육효능감	→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12	.12	-1.01	-.14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40	.16	-2.55	-.46



(그림 2) 6개월 시점 부모 양육효능감이 9개월 시점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APIM모형

2)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상대방(actor-partner) 효과 확인(등가제약모형)

6개월 시점의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등가제약모형을 설정하여 기본모형과 비교하였다. 각 효과들 간 비교를 위해 4개의 등가제약모형이 설정되었고 각 등가제약모형과 기본모형 간의 χ^2 값을 비교하였다(<표 4> 참고). 4개의 등가제약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효과를 등가제약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다.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갖는 자기효과 비교($a = a'$), (2)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상대방의 양육스트레스에 갖는 상대방효과 비교($b = b'$), (3)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아버지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상대방 효과 간 비교(a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 검증

Model	χ^2	df	TLI	CF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39.74	36	.92	.96	.057	
자기효과 등가제약 ($a=a'$)	39.94	35	.93	.96	.054	$\chi^2(1)=.20$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b=b'$)	40.60	35	.93	.96	.055	$\chi^2(1)=.86$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등가제약 ($a=b'$)	44.51	35	.90	.95	.065	$\chi^2(1)=4.7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등가제약 ($a'=b$)	40.91	35	.92	.96	.056	$\chi^2(1)=1.17$

= b'),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아버지 양육효능감의 상대방 효과 간 비교($a' = b$)이다. 이 때 등가제약모형의 χ^2 값이 기본모형의 χ^2 값, 즉 적합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빠진다면 제약을 가한 두 경로의 크기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첫째, 6개월 시점의 양육효능감이 9개월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만, 그 크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 양육효능감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갖는 상대방 효과는 기본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아버지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PIM모형을 활용하여 12개월 미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부부의 양육변인을 개인 내와 개인 간 차원으로 분석하여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6개월 시점에 측정된 양육효능감은 9개월 시점에 측정된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자기효과가 나타났다으나 상대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개월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이 자신의 양육효능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기효과 크기의 차이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난 최효식과 연은모(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손수민(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특성이나 자녀 특성보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성인 부모효능감이 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박미숙, 2012; 오미연, 2005; 한유미, 2003; Johnston & Mash, 1989)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서주현, 김진경, 2012; 이수미, 민하영, 2007; 이순웅, 2010; 이진희, 2011; 이인정, 2015) 결과들은 아버지가 공동양육자라기 보다는 지원, 협력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을 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자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상호 간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갖는지 밝힌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육을 돕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본 가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등한 양육자로 아버지가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아버지 스스로의 양육스트레스는 경감되지만 이러한 영향력이 어머니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모두 첫째 자녀로 통제하였기 때문에 양육경험 부재로 인한 양육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육초기이므로 양육을 위한 부부 간의 공동협력 구조를 갖기보다는 각자의 노력이 자신의 양육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관계 변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최정신,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만을 중심으로 볼 때 아버지 스스로 양육에 유능함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지지를 더 많이 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1세 미만 영아기 자녀양육 특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양육은 일상적인 보살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후 시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먹이고 채우는 일상적 보살핌은 적고 자녀와 놀아주거나 학습지도와 관련된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서영민, 2014; 성수현, 1996; 한누리, 문혁준, 2014) 이 시기 아버지 양육효능감이 아버지 스스로에게는 영향력을 갖지만, 어머니가 체감하는 정도는 낮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에 갖는 상대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스스로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 각각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정원, 장석경, 2010; 이영환, 2008),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도 아버지, 어머니가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부모교육은 부부공동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분되는 부모역할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자녀양육에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첫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12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지원이 타 연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그동안 아버지 양육효능감은

다른 양육변인에 비해 학술적으로 다소 간과된 측면이 있고,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자녀 관계는 어머니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Belsky, Gilstrap, & Rovine, 1984; Cummings, Goeke-Morey, & Raymond, 2004) 양육초기의 아버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서 진행하는 예비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과 양육실제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버지를 제 2의 양육자나 조력자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 주도적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고(강수경, 정미라, 김민정, 2015), 아버지 역할을 감독, 제어하거나 간섭하는 신념 및 행동인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Allen & Hawkins, 1999; La Rossa, 1997)은 아버지의 방임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임(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주체적인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효과적인 양육전략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시 양육효능감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Jones & Prinz, 2005). Gross 등(1995)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 후 증가된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cheel과 Rieckmann(1998)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교류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부모지원이나 교육이 초기 양육과정에 이루어질 때 교류적, 순환적 과정을 통해 높은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2개월 미만인 6개월과 9개월에 각각 측정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단기종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동양육자로서 부모는 자신의 부모역할에 따른 양육효능감을 높일 때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영아기 초기의 양육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APIM모형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높은 부모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부모 모두 양육변인에 대한 자기효과가 매우 크며, 부모교육 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효능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추이에 따라 12개월 이후의 다른 시점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만 반복측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교류수준 등 부부간 관계정도를 밝힐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기,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추후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실제 양육행동과 영아 발달 간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경, 정미라, 김민정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271-291.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근혜, 김혜순 (2013).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22(4), 111-129.
- 김낙홍, 백인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유아 교육기관 생활적응, 사회적 능력,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9(1), 365-384.
- 김미옥 (2007).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 종단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장석경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양육참여에 대한 이미지.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3), 29-48.
- 노성향 (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박미숙 (201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민 (2014). 부 양육참여와 모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미치는 모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성수현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아동교육**, 5(2), 54-72.
- 손수민 (2010). 영아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가정 및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14(4), 267-288.
- 손원혁 (2016. 4. 6). [일사일언] 남편들의 육아수다. **조선일보**, p. A21.
- 송미혜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연 (1999). 아동의 정서인식능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 (2009). 유치원의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수행 및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6), 417-442.
- 연은모, 최효식 (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0, 79-108.
- 연은모, 최효식, 윤혜옥 (2015).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5(3), 171-195.
- 오미연 (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 (2008).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미, 민하영 (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순웅 (2010). 취업모의 취업관련 특성, 남편의 양육참여, 부모-교사 협력행동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윤정 (2014). 아동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5, 117-136.
- 이인정 (2015).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1), 343-370.
- 이인정, 김미영 (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19(4), 81-91.
- 이진희 (201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 정옥분 (2012).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윤주, 김윤주 (2014).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485-511.
- 정인영 (2008). 영아에 대한 어머니 민감성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인 (2003).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오, 탁정화 (2015).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443-468.
- 최정신 (2009).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24.
- 최항준, 조수경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157-8164.
- 최항준, 조수경, 김미정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어머니 심리특성을 매개효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383-402.
- 최효식, 연은모 (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한누리, 문혁준 (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 한유미 (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P.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irgini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Amato, P. R., Meyers, C. E., & Emery, R. E. (2009). Changes in nonresident father-child contact from 1976 to 2002. *Family Relations*, 58(1), 41-5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3), 692-705.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2), 556-578.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243-267.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1042-1050.
- Crnic, K.,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ummings, M. E., Goeke-Morey, M. C., & Raymond, J. (2004). Fathers in family context: Effects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conflic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196-221). Hoboken, NJ: John Wiley.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Fincham, F. D., & Beach, S. R. (2010). Marriage in the new millennium: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3), 630-649.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ross, D., Fogg, L., & Tucker, S. (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6), 489-499.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3r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158-176). Newbury Park, CA: Sage.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kson, A. P. (1998).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parenting for low-income, single, black mothers. *Social Service Review*, 72(3), 365-378.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Junttila, N., Aromaa, M., Rautava, P., Piha, J., & Riih , H. (2015). Measuring multidimensional parental self-efficacy of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ages 1.5 and 3 Years. *Family*

- Relations*, 64(5), 665-680.
- Kazdin, A. E., & Whitley, M. K. (2003). Treatment of parental stress to enhance therapeutic change among children referred for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504-515.
- Kitzman-Ulrich, H., Wilson, D. K., George, S. M. S., Lawman, H., Segal, M., & Fairchild, A. (2010). The integration of a family systems approach for understanding youth obesity, physical activity, and dietary program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3(3), 231-253.
- La Rossa, R. (1997). *The modernization of fatherhood: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mb, M. E.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Hoboken, NJ: Wiley.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944-956.
- Murkoff, H., Eisenberg, A., & Hathaway, S. (2009). *What to expect the first year*. NY: Workman Publishing.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Sander, L. W. (1964). Adaptive relationships in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3(2), 231-264.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15-2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2), 251-263.
- Woodworth, S., Belsky, J., & Crnic, K. (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79-692.
- Zero-to-three (2008). *Your baby's development(3 to 6 months)*. Retrieved October 15, 2013 from <http://main.zerotothree.org/site/DocServer/3-6Handout.pdf?docID=6041>

Zero-to-three (2008). *Your baby's development(9 to 12 months)*. Retrieved October 15, 2013 <http://main.zerotothree.org/site/DocServer/9-12Handout.pdf?docID=6061>

논문투고: 16.04.18
수정원고접수: 16.05.16
최종게재결정: 16.05.23